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8월 12(화) 09:2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부 무역정책과 조영태 과장(044-203-4020), 김도엽 서기관(4021)

2017년까지 1만개 이상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로

- 산업부, 6차 무투력투자회의에서 「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」 발표 -

□ 정부는 **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충**하기 위해 **「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」을 마련**하여 **내수에 머물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적극 육성**하고, **소상공인도 쉽게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**하기로 했다.

○ 우선, **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**하기 위해 제품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로 인해 내수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**기업별 수출 역량**에 따라 직(直)**수출 맞춤형 지원,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, 대기업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** 등 다양한 해외진출 채널을 제공하고, **무역금융·정보 등 기존 수출지원제도**도 **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맞도록 대폭 개선**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**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**하기 위해 해외소비자들이 우리 중소중견기업 상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**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을 지원**하면서 **국내에도 중소중견기업 수출 專用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**하고, **수출 및 세무신고·해외 배송·해외 현지통관**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주되게 제기해 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**全방위적인 제도개선**을 추진하기로 했다.

□ 그 동안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**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수출기업의 비중이 낮아 수출 증가의 온기가 경제 곳곳으로 스며들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낙수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**을 가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번 「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」을 마련했다.

□ 정부는 **2014. 8. 12.(화) 박근혜 대통령 주재**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과 정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**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**하고, **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**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: 윤상직)는 **수출의 온기가 우리 경제 곳곳으로 스며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**할 수 있도록,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**「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」**을 보고했고

○ 기획재정부(장관 : 최경환)를 비롯한 7개 부처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「투자활성화 대책: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」을, 농식품부는 「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대책」을 보고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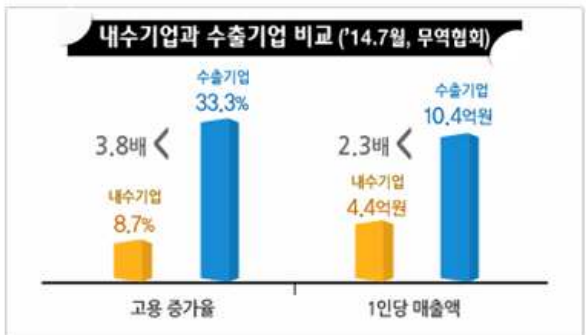
□ 산업부가 보고한 **「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」**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1. 최근 우리 무역의 흐름과 당면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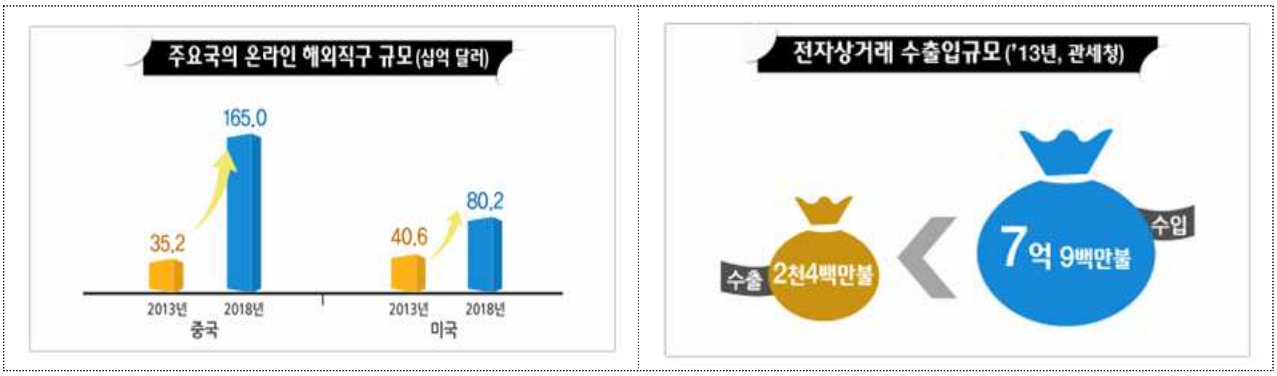
① 최근 우리 **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**하고는 있으나, 아직은 **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수출기업 비중이 낮아 수출 증가의** 온기가 경제 곳곳으로 스며드는 **낙수효과(Trickle-down effect)가 미흡**한 상황이다.

○ 그 동안 **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빠르게 성장**했다는 조사결과('14.7월 무역협회)를 감안하면, **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**하게 되면 **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날** 뿐만 아니라 **해당 중소기업의 발전**도 가능하다.





2 전**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교역이 급증**하고 있는 가운데, 우리의 전자상거래 **수출(逆직구)는** 수입(해외직구)에 비해 **초보단계**다.



3 또한, **최근 원화 강세** 등으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**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채산성과 자금사정이 악화**되고 있다.



⇨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**수출의 저변을 확충**하고 **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**하기 위해 **①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**하고, **②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**하면서,

○ ③중소중견 수출기업의 **환리스크 대응과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**하기로 했다.

2.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

□ **(정책 목표)**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**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 10만개 이상으로 육성**할 계획이다.

*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 : **('13년) 9만개 → ('17년) 10만개 이상**



1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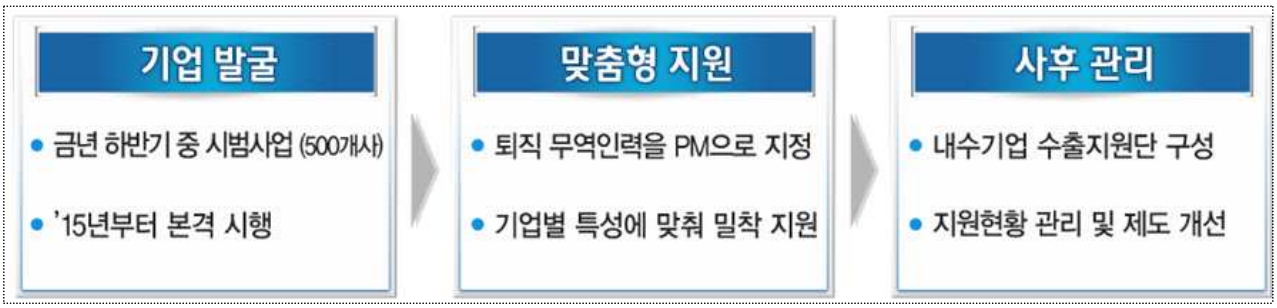
◈ 인쇄회로기판(PCB)를 생산하여 **100% Local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A사**는 **直수출을 하고 싶지만**, 해외 마케팅 인력 부족, 바이어 발굴, 자금 부족, 환리스크 등 **각종 애로로 인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음**

○ 현재 A사와 같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로 인해 지역(Local) **수출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3.3만개, 수출을 중단한 기업이 2.4만개**나 된다.

○ 이렇게 **直수출 역량이 있는 내수기업**(로컬수출기업·수출중단기업·수출기업화 희망기업)**을 적극 발굴**해서 **퇴직 무역인력을 1:1 매칭**하여 **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수출 전단계를 밀착 지원**할 계획이다.

- 우선 **올해 하반기 500개사**를 대상으로 한 **시범사업**을 시작으로 **내년부터 매년 3~4천개사를 발굴하여 본격 시행** 한다.

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프로세스



②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진출 채널 다양화

○ 직(直)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**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**과 **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**을 지원한다.

- 특히, **올해 9월**까지 **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***하여 내수기업에게 매칭할 계획이다.

* 지정된 전문무역상사에게는 코트라 등 **수출지원기관에서 수집한 바이어 주문정보 제공, 선적전·후 수출신용 보증한도 확대** 등을 지원.

무역상사의 중소기업 제품 발굴·수출 성공사례

◈ 대만, 베트남 등에 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**무역상사 B사**는 북경 유아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**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한 新제품인 어린이용 치약을 발굴해 중국시장을 개척**하는 데 성공한 바 있음.

③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무역인프라 확충

◈ 중소형풍력발전기를 생산하는 **내수기업 C사**는 자체 제품 개발 1년 만에 스페인의 M사와 6천만 달러의 **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수출실적이 없는 등의 이유로 시제품 제작자금을 구하지 못해 현재 수출이 잠정 중단**된 상태임.

◈ 유·아동용 전동차를 생산하는 **중소기업 D사**는 미국 대형유통업체 W사와 수출계약을 위한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**생산설비 구매자금이 필요**하지만 **전년도 수출이 많지 않아 무역금융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**임.

○ **(무역금융 확대)** C사와 D사의 예와 같이 **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에게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**하면서 **경영컨설팅도 함께 제공**하는 제도를 **올해 9월**에 도입한다.

- 우선 첫 수출·수출초보·무역보험 최초이용기업 등에게 **최대 10만달러까지 지원**하는 **"수출 첫걸음 희망보험"을 신설**하고(무역보험공사)

- **과거의 적은 수출실적으로 인해 지원한도가 부족한 수출 급성장 기업**에게 **연간 3,000억원 한도 내**에서(필요시 한도 확대) **특별 무역보험을 과감히 지원하기로 했다.**(무역보험공사)

- 또한, 수출입은행에서도 첫수출·수출중단기업에게 **대출금리 인하(최대 0.5%p), 컨설팅** 등을 지원하는 **"수출기업화 지원제도"를 신설했다.**

○ **(통합 무역정보 제공)** 올해 **7월**부터는 그 동안 **34개 수출지원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시장정보를 한 곳**(www.tradenavi.or.kr)에서 손쉽게 볼 수 있게 됐다.

④ 정상외교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

○ 우리 기업들이 **해외진출에 정상외교를 충분히 활용**할 수 있도록 **정상외교 활용포털을 보다 활성화**하고 **정상순방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의 운영도 획기적으로 개선**하기로 했다.

- 특히, 정상외교 활용포털에 **경제사절단에 참여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집중적으로 게재**하기로 했다.

경제사절단 참여 중소중견기업 성공사례

◈ **신동에너콤**은 **'14.6월 중앙아시아 경제사절단에 참여**하여 **우즈벡 실리콘메탈 공장**(年매출 1,300만달러)의 **조기 가동**(당초 일정보다 4개월 단축)에 합의하고, **방적공장 설비고도화 투자 MOU**(500만달러 규모) **체결**에 성공한 바 있음.

□ **(기대 효과)** 이렇게 **2017년까지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 1만개 이상을 수출기업으로 육성**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**약 200억 달러*가 넘는 규모의 새로운 수출이 창출**될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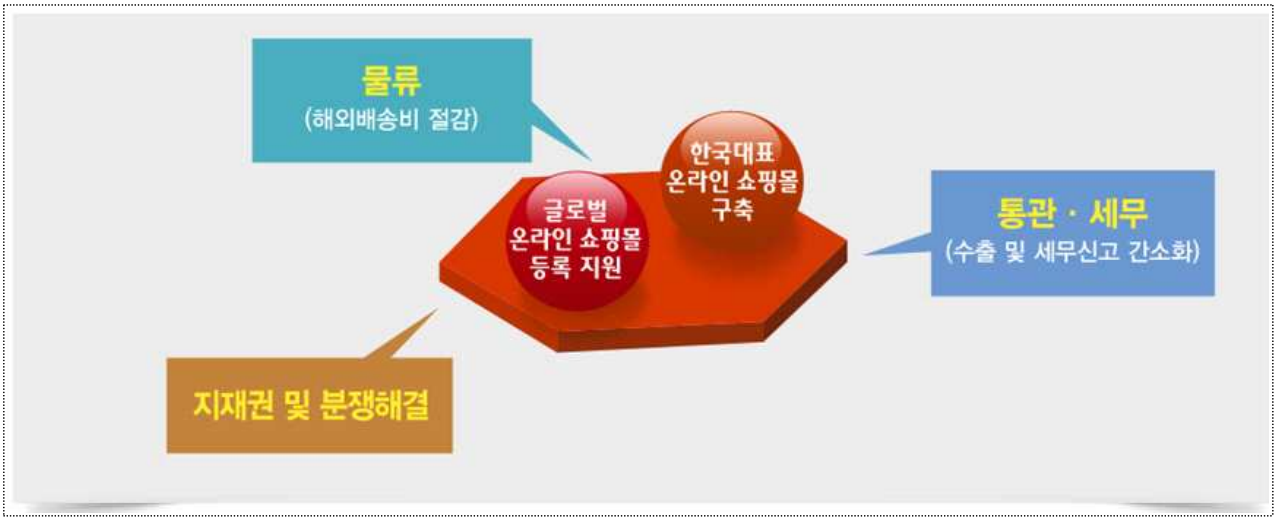
* 중소중견 수출기업 당 평균 수출액이 약 200만 달러임을 감안할 추정치

3.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

□ **(정책 목표)** 2013년 2천4백만달러에 불과한 **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**하여 **누구나 쉽게 전자상거래를 활용해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출방식**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.

*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 : **('13년) 2천4백만달러 → ('17년) 3억달러 이상**

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(요약)



1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확충

○ **(Kmall24 개통)** 중소중견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수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**6월말** 무역협회에서 **중소중견기업 수출 專用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**(www.kmall24.com)**를 개통**했다.

- Kmall24는 **Active-X와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원클릭 간편 결제**, Amazon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동시 등록, 묶음배송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, **2017년까지 약 1천개사·1만개 상품을 입점**한다.

○ **(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 지원)** 또한, 중소기업 상품이 **Amazon(미), 타오바오(淘宝, 中) 등에 등록**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
2 전자상거래 수출·세무신고 간소화

◈ 휴대폰 악세사리, 의류 등을 **온라인으로 수출하는 E사**는 **하루 평균 500건을 수출하는 데 '정식' 수출신고를 하려면 1건당 5분 이상이 걸려 정식 신고를 포기**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수출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어 **무역금융, 관세 환급 등과 같이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**

○ **(수출신고 간소화)** E사와 같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**무역금융, 관세·부가세 환급 등과 같이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**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**수출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**할 계획이다.

- 우선 **올해 7월**부터는 **수출품목 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대폭 축소**하고, **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고***할 수 있는 **전자상거래 '간이' 수출신고제도**를 시행했다.

* **(개선 前)**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에 수출신고 건별로 신고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 → **(개선 後)** 최대 100건의 수출신고 항목이 기재된 엑셀 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일괄적으로 변환하여 UNI-PASS에 등록 가능

⇒ 간이수출신고를 한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**수출신고필증을 발급**받아 **무역금융, 부가세·관세 환급 등에 활용**할 수 있다.

- **관세 환급**이 **필요 없는 기업**들을 위해 **올해 9월**부터는 **목록통관 수출신고(신고항목 15개)**만 하더라도 관세청으로부터 **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**받아 **무역금융, 부가세 환급 등에 활용**할 수 있다.

○ **(세무신고 표준화)** 현재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**세무서 혹은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**해야 하지만,

- **올해 12월**부터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발급받는 **수출신고필증**이나 목록통관 수출신고로 발급받는 **수출실적증명서만으로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**하다.

3 전자상거래 물류·통관 원활화

◈ 아이돌 스타의 음반 등 **한류상품을 온라인으로 수출하고 있는 F사**는 **수출하는 물품의 단가에 비해 해외 배송비용이 많이 들고**,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**현지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**되는 경우가 많아 고민임

○ **(해외 배송비 절감)** F사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**해외 배송비를 절감**하기 위해 **올해 12월**부터 **(韓)인천→(中)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**해서 **우체국 국제특송(EMS)보다 30% 이상 저렴한 해상배송 서비스***를 **도입**한다.

* 다만, 배송시간은 우체국 EMS에 비해 약 2일 더 소요 (우체국 EMS : 3~4일 vs 페리선 배송 : 5~6일)

- 또한, **올해 9월**부터는 **DHL·Fedex와 단체협약요금을 도입**하여 **1천여개 기업**이 **일반요금에 비해 50% 내외로 저렴**하게 DHL과 Fedex의 해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전자상거래 해외 배송비 절감 효과

◈ F사가 아이돌 스타 DVD(화보집, 엽서 등 포함) 2개(가격 3만 5천원, 무게 2kg)를 **중국 칭다오**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

- ㅇ **기존 우체국 EMS**를 이용하면 배송비는 **24,200원**, 배송시간은 **약 3일** 소요
- ㅇ **기존 DHL·Fedex 일반요금**을 이용하면 배송비는 **39,900원**(수출신고 대행, 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 포함), 배송시간은 **약 2일** 소요
- ㅇ 반면, **올해 12월에 도입**되는 **페리선을 활용한 해상 배송서비스**를 이용하면 배송비는 **14,000원**(우체국 EMS에 비해 약 40% 저렴), 배송시간은 **약 5일** 소요
- ㅇ **올해 9월에 도입**되는 **DHL·Fedex의 단체협약요금**을 이용하면 배송비는 **24,500원**(일반요금에 비해 약 40% 저렴), 배송시간은 **약 2일** 소요

○ **(전자상거래 수입통관 간소화)** F사와 같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**해외 현지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을 겪지 않도록**

- 중국, 베트남 등과의 FTA 협상에서 **일정금액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신고를 면제**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.

4.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

1 환리스크 대응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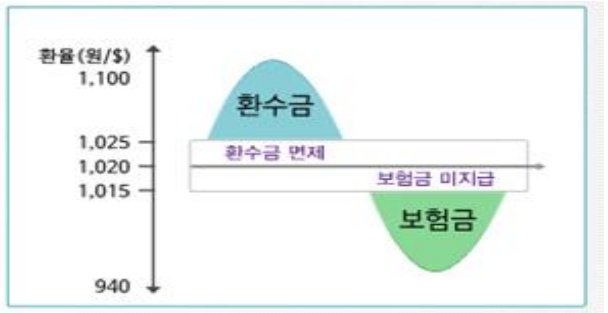
◈ 미주지역으로 현금인출기를 수출하는 G사는 시중은행을 통해 환헷지를 해왔는데 **시중은행 한도가 전년도 수출실적의 절반**에 불과하여 **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하여 30% 한도를 추가**적으로 받았으나, 여전히 **나머지 20%는 환율하락에 그대로 노출**되어 어려움이 많았음

○ **(환변동보험제도 개선)** G사와 같이 **최근의 원화 강세** 등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

- **올해 7월**부터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**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%까지로 확대**(기존 70~90%)했고,

- **올해 8월**부터는 새로운 **「범위 환변동보험」을 도입**하여 수출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일 계획이다.

「범위 환변동보험」의 개념



◇ 기업이 자체적으로 일부 환위험은 부담하되, 일정환율 이하로 하락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고 일정환율 이상으로 상승하면 환수금을 부담

⇒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 범위 이상의 급격한 환율하락에 대비

○ **(환율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강화) 올해 6월**부터 **1만 2천여개** 무역보험 이용 기업에게 **환율 일일동향 문자서비스를 제공**하고 있으며,

- **올해 9월**부터는 무역보험공사의 **환위험 전문가 40~50명을 수출현장**(현지 지사)**에 배치**해서 현장 밀착 컨설팅을 제공한다.

2 정책금융 지원 확대

○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**자금사정**이 악화되지 않도록 **금년 하반기** 중 **당초 계획보다 1조 7천억원이 늘어난 54조 3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**할 계획*이다.

* '14년 하반기 중소중견 수출기업 정책금융 지원 : **(당초) 52.6조원 → (확대) 54.3조원**

[참고 1]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표 성공사례
[참고 2] 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(전문)
[참고 3]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김도엽 서기관(☎ 044-203-40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표 성공사례

구분	수출기업화 스토리
A사	ㅇ (수출계기) 차량 및 아웃도어 블랙박스 제조회사로 국내 블랙박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진출을 희망 ㅇ (수출애로) 내수에만 주력하던 회사로 수출 관련 시스템 미비 ㅇ (성공요인) 수출유관기관의 컨설팅으로 수출 전략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안을 수립, 무역실무교육 등으로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을 양성 ⇒ 2012년 첫 수출 성공, '13년 25만달러 수출 기업으로 성장
B사	ㅇ (수출계기) 구이김 12년 경력의 대표가 운영하는 구이김, 김자반 제조업체로 해외의 웰빙식품 선호 추세를 고려하여 해외시장 개척 추진 ㅇ (수출애로) 현지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홍보와 판로개척 애로 ㅇ (성공요인) 외국인 식습관을 감안한 제품개발, 국내 대형마트와 함께 해외한국식품 박람회에 참석 등 해외동반진출 ⇒ 2012년 첫 수출 성공, '13년 25만달러 수출 기업으로 성장
C사	ㅇ (수출계기) 재난방재, 보안용 및 작업용 라이트 설계·제조회사로 국내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모색 ㅇ (수출애로) 일반소비재 판매가 아니기에 적합한 고객 발굴에 애로 ㅇ (성공요인) 수출유관기관 전문위원의 컨설팅 등으로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출 계획 수립 및 바이어 발굴 ⇒ 2013년 첫 수출 성공, '13년 5만달러 수출 기업으로 성장
D사	ㅇ (수출계기) 해양오염방지설비 전문 제작업체로 높은 기술력으로 해외시장 호평 ㅇ (수출애로) 수출 경험이 없고, 수출 전문인력이 없어 대응에 애로 ㅇ (성공요인) 수출유관기관의 현장방문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진단 후 수출 전략 수립, 해외전시회 참가 등으로 해외 거래선 발굴, 인증 지원 ⇒ 2014년 첫 수출 성공, 38만달러 수출 달성
E사	ㅇ (수출계기) 색조화장품 전문 OEM, ODM기업으로 기존에는 간접수출을 주로 하였으나, 간접 수출만으로는 매출 및 수익성 증대에 한계 ㅇ (수출애로) 직접수출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·물적 투자가 필요 ㅇ (성공요인)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활용하여 B2B사이트를 통해 수출 인콰이어리 접수, 무역분야 전무인력 채용 및 전담부서 신설 ⇒ 2013년 중국과 태국에 2만6천달러 수출 달성

참고2

수출저변 확충을 위한

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

2014. 8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····· 3

Ⅲ.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····· 11

Ⅳ.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강화 ····· 18

Ⅴ. 과제별 실천계획(Action Plan) ····· 22

Ⅰ. 추진배경

1. 최근 우리 무역의 흐름과 당면과제

□1 수출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, **수출기업의 범위가 협소**하여 **수출 잠재력이 둔화**되고 **수출-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화**

○ 최근 **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***하고 있으나,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**아직 낮은 수준**

*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(%) : ('11) 33.0 → ('12) 32.1 → ('13) 32.8 → ('14.1~6) 33.5

○ **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이원화**는 우리 **경제혁신의 장애요인**이 되고, 수출 증가가 내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**파급효과가 약화***

* 수출의 고용유발계수(추가적인 수출 10억원 발생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인원) : ('03) 9.4 → ('05) 7.6 → ('07) 7.1 → ('09) 6.5 → ('10) 5.9 → ('11) 5.5

- **내수에 머무른 기업**은 수출기업에 비해 생산성 향상·R&D 등 **혁신유인이 미흡**하여 **고용창출능력과 성장률이 낮음***

*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은 3.8배, 1인당 매출액은 2.3배,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1.6배, 1인당 임금 상승률은 1.6배 더 높음(무협, '14.7월)

□2 인터넷 확산 등으로 **전자상거래 등 수출채널이 다양화**되고 있으나, 우리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

* 특히, 중국 1,800만명의 해외 온라인 쇼핑인구가 총 355억불 지출 추산('13년)

○ 세계 최고의 **IT 인프라, 한류 확산, 중국시장 인접성** 등 기회요인에도 불구하고, **수입(해외直購)에 비해 수출(역直購)가 매우 저조**

- **해외 소비자**는 온라인 상에서 한국상품을 접하거나 구매(결제·배송)하기 어렵고, **국내 판매자**는 전자상거래 수출역량이 부족하기 때문

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(백만달러·%, 관세청)

구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
수출액 (증가율)	2 (-17.9%)	4 (110%)	11 (140.7%)	24 (125.2%)
수입액 (증가율)	220 (136%)	378 (72.2%)	494 (30.6%)	709 (43.6%)

○ '천송이 코트'로 대변되는 **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를 실제 수출성과로 연결**되도록 물류·통관 등 **추가 제도개선이 필요**

3 최근 **급격한 원화절상** 등 수출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수출기업들의 **채산성이 악화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** 상황

○ 현재 환율은 수출 시 **손익분기점 환율을 하회***하고 있으며, 대부분의 중소·중견기업이 **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****

* 손익분기점 환율(원/달러) : (무협) 1,045원, (중기중앙회) 1,038.1원, (전경련) 1,052.3원

** 361개 중소중견기업 설문조사('14.5, 무보) 결과, 중소중견기업 74%가 환위험에 노출

○ 중소·중견 수출기업은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 확대 등 **환위험 대응 지원과 무역금융 확대 공급을 요청**

2. 대응 방향

□ 우리의 **수출저변이 확충**되도록

○ **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**를 집중 지원

○ **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**하여 **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** 지원

□ 최근 원화절상 등 **수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**하여 기존 중소·중견 수출기업의 **환리스크 대응 및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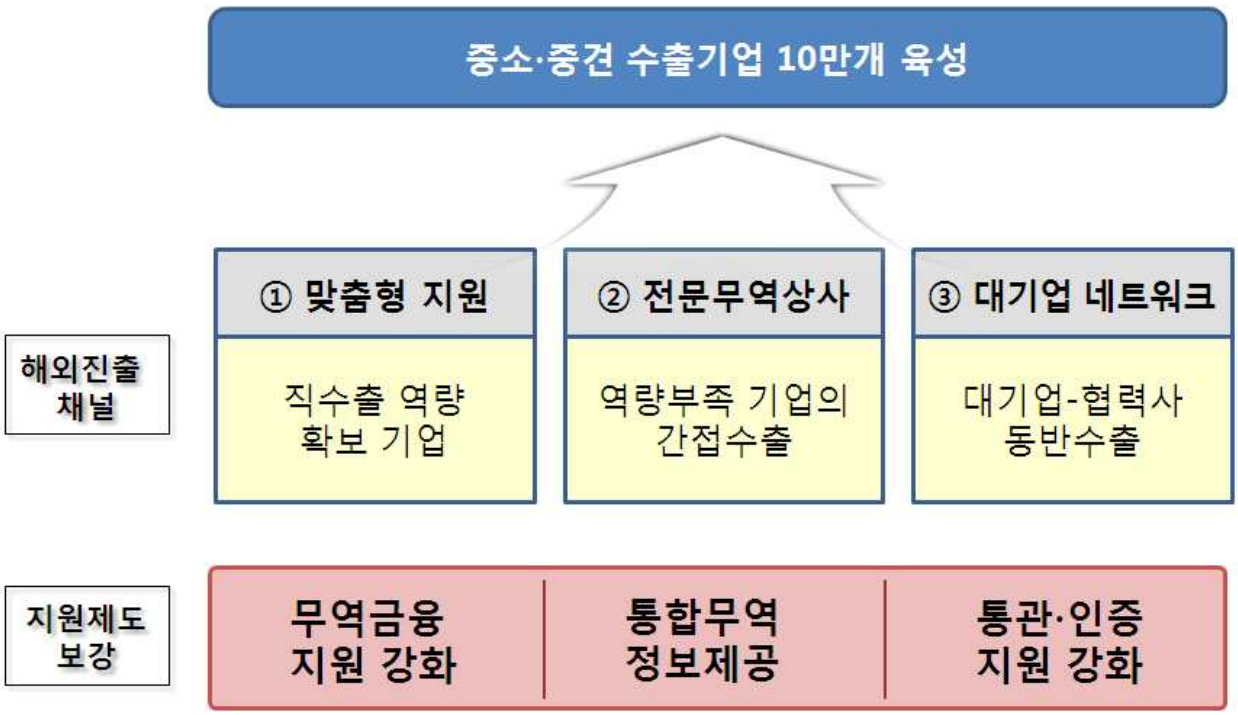
Ⅱ.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

□ **(정책방향)** 중소·중견 수출기업 10만개 육성*을 통해 "내수기업 → 수출기업 → 글로벌 전문기업"에 이르는 **성장사다리 구축**

* 수출 중소·중견기업수(개) : ('13년) 9만 → ('17년) 10만 이상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**수출역량에 맞는 다양한 해외진출 채널을 구축**

○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맞도록 **기존의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**



□ **(기대효과)** 2017년까지 **중소·중견 수출기업 1만개** 증가시 **200억달러의 수출 창출*** 가능

* 중소·중견 수출기업당 평균 수출액 약 200만달러 감안

○ 또한, 중소·중견 수출기업의 **성장과 투자확대**를 통한 **일자리 창출** 기대

1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

◇ **수출역량이 있는 내수기업을 발굴, 유관기관간 협업체계**를 구축하여 **맞춤형으로 지원**

□ **(기업 발굴)** 수출역량을 보유한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**지원기업군을 발굴***하고 기업별 역량평가를 거쳐 **구체적 수출지원 방안 도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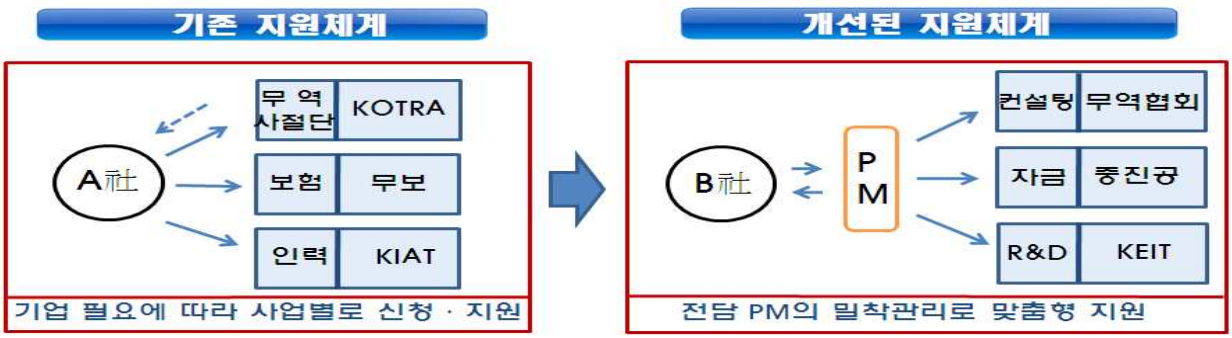
* 로컬수출, 수출중단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망기업 발굴, 중기 수출 지원센터 등을 통해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금년 하반기 지원기업군 500개사 도출

□ **(맞춤형 지원)** 해당 기업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**정보·인증·마케팅·금융** 등 **맞춤형 지원**('14.下~)

○ **유관기관 직원과 퇴직 전문무역인력**을 **사업관리자**(PM)**로 지정**하여 수출기업화에 필요한 **全단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**

- 유관기관(코트라·무협·중진공)별로 **퇴직전문인력**을 **확보**하여 밀착지원(20개사 내외/인)

- **산업단지내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단**(멘토·멘티)을 운영하여 지방 중소기업을 밀착지원('14.7월~)



○ 금년 하반기 **시범사업**(500개사) 후 **'15년부터 본격 시행**

▸ **(성공사례)** LED 제조업체인 두빛은 내수 침체로 '12년부터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조달 위주로 거래되는 LED 특성상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음 → '13년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받아 약 9만달러 수출성사

□ **(사후관리) 내수기업 수출지원단***을 구성, 지원현황 관리 및 보완과제 도출

* 내수기업 수출지원단 : 산업부, 중기청, 관세청, 무역협회, 코트라, 중진공, 무보, 수은 등

2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진출 채널 다양화

◇ **전문무역상사 활성화** 및 **대기업 네트워크 활용**을 통해 수출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F4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 확대

○ 해외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내수기업 지원을 위해 **시장·품목 전문성을 보유**한 **전문무역상사 지정·운영***('14.9월, 제1차 무투회의 후속조치)

* 종합상사제도 폐지('75~'09년) 이후 민간 지정형태로 전문무역상사 제도 운영 중 → 활성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제도화('14.7.22일 발효)

**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무역상사 후보Pool(1400여개) 중 100여개 지정

- **농수산식품, 문화콘텐츠 등 수출유망 분야도 선정***을 추진하고 실적평가를 통해 **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**

* 수출유망 분야 수출목적의 특수법인은 요건 미달시 주무부처의 추천을 통해 지정

○ **유망 내수기업과** 수출 지역·품목에 맞는 **전문무역상사 매칭** 확대

*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찾기 서비스 등 온라인 상시매칭 지원, 수출상담회 정례화

○ 전문무역상사의 **해외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현지바이어 발굴 강화** 및 수출지원기관에서 수집한 **바이어 주문정보를** 전문무역상사에 **제공**

* 종합상사 해외지사, 세계한인무역협회(OKTA, 123개 지회),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(INKE, 78개 지부) 등과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○ 내수기업 수출을 위한 전문무역상사의 **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**

* (무역금융) 선적전·후 수출신용 보증한도 확대, (마케팅) 해외마케팅 참여시 제조업 수준의 참여기회 제공, 전용홍보관 설치, e-카탈로그 제작 지원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

전문무역상사 수출 성공 사례

▸ 무역상사 S&C(security&container)의 중소기업제품 간접수출 성공사례

- (주)S&C는 새로운 수출 아이템을 발굴하던 중 우연히 기존 일본 거래처에서 대지진 이후 태양열 수요 증가로 태양열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태양열 판넬 설치 철구조물 수출 의뢰를 받음
- 국내 제조업체(경남 진흥기업사)를 발굴하여 바이어가 희망하는 스펙에 따라 물품 제조를 의뢰하여 일본시장에 30만달러 규모의 수출 성공('12.10월~13.1월)

F5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기업의 해외진출기회 확대

○ **(유통망) 대기업 해외 유통망**(TV 홈쇼핑, 대형유통망 등)**에 유망 내수기업 제품 공급을 지원**하여 수출기업화

- 대형유통업체-중소기업간 **판로상담회, 우수상품전** 등 개최('14.下)

▶ **홈쇼핑 :**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의 해외플랫폼을 활용 가능토록 "방송준비→홈쇼핑방송→사후마케팅"을 단계적으로 지원

* (사례) 구강세정기 전문기업 (주)아쿠아픽은 '12년 중국진출을 추진하였으나, 인력부족, 인허가 등의 애로를 겪던 중 홈쇼핑사(동방CJ)의 도움으로 한류와 연계한 동영상제작, MD 자문 등으로 진출에 성공 (5회방송, 2.2억원의 매출)

▶ **유통망 :** 유통 대기업 현지매장에 중기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입점 지원, MD 초청 전시회 등 추진(L마트 한국상품 전용관 - 인니, 중국, 베트남)

* (사례) 유명 캐릭터(뽀로로) 치솔·치약을 제조하는 케이엠제약은 중국 L마트와 공동마케팅(팜플렛 광고)을 통해 K-HIT매장(중진공 운영)내 초도물량이 매진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중국 L마트 13개 매장에 입점

○ **(프로젝트)** 대기업 수주 해외 프로젝트에 **내수 중소·중견기업의 기자재 공급 확대**로 수출기업화

- 유망 건설·플랜트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**벤더등록 지원**

* 벤더 등록 지원기관 : 플랜트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코트라, 해외건설협회, 환경부

-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·보증시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지원

* (수은) 수은·대기업간 상생협력 협약체결 확대(46 → 50개) 등
* (무보) 무보·은행간 어깨동무 상생보증 확대(억원) : ('13) 1,922 → ('14) 2,150

▶ '14.5월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하는 터키 정유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30여개 대기업(G건설) 협력 중소 설비·기자재 업체가 참여

○ **(동반진출)** 대·중소기업(납품·원청업체)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**협력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*을 2차 벤더로 확산**

* (사례) G社 "중소기업제품 해외판로지원", S사의 "오픈마켓해외진출", L사의 "브랜드파워를 활용한 국내외 판로 확보", H사의 "홈쇼핑수출지원" 프로그램 등

3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무역인프라 확충

◇ **무역금융 지원제도 보강, 맞춤형 통합무역정보 제공, 통관·인증** 등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**무역 인프라 확충**

F4 무역금융 지원제도 보강

① **(수출초보기업 지원)** 수출경험 없는 기업*이라도 **무역금융 적극 지원**

* 현행 무역금융 지원은 **전년도 수출실적·재무상태 등에 기반한 심사**로 **수출초보기업 및 급성장기업 지원에 한계**

- **(무보)** 첫수출·수출초보·무역보험 최초이용기업 등에 대해 **최대 10만달러*까지 지원** 가능토록 **"수출 첫걸음 희망보험"** 신설('14.9월)

* 우리나라 중소중견수출기업 8.6만개 중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가 57.1% 차지

※ 수입자 신용조사 및 한도심사 생략, 보험료 50% 할인 등을 부대 지원

- **(수은)** 첫수출·수출중단기업에 대한 **대출금리 인하**(최대 0.5%p), **컨설팅 등을 지원**하는 **"수출기업화 지원제도" 신설**('14.9월)

② **(무역보험 특례지원)** **수출초보 및 수출급증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** 제도 도입('14.9월)

▸**(사례)** H기업은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나, 금융기관의 전년도 수출실적 등에 기반한 심사·평가로 지원한도가 낮아 수출이행에 애로

○ 수출 초보 및 성장기업이 **경제성 있는 해외 수출기회 확보시 별도 심사위원회**를 구성·심사 후 **특별지원**

-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**전년도 수출실적에 상관없이 프로젝트 경제성·안정성·수출이행능력** 등을 평가

- 중과실 없이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**사고발생시**에도 **관련자 면책**

○ 우선 **연간 3,000억원 한도 내에서 운용**(수출신용 포함)하되, 지원 상황을 보아가며 **부족시 확대**

F5 맞춤형 통합무역정보 제공

◇ 기관별로 분산된 **무역정보를 통합**하여 한 곳에서 제공하는 **통합 무역정보서비스**(www.tradenavi.or.kr) **본격 운영**('14.7.1일 개통)

* 2차 무투회의('13.7월)시 산재된 무역정보의 연계 필요성이 언급됨에 따라 추진

○ **정보연계기관**을 **모든 수출유관기관으로 확대(12개→34개)**하여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애로 해소

○ **정부 3.0**에 따라 **바이어* · 바잉오퍼 등** 핵심정보를 포함, **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****하여 제공

* **약 60만건**(무역협회 32만건, 코트라 16.3만건, 무역보험공사 11만건)

** 단, 개인정보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정보의 경우는 공유 제외

○ HS코드를 통해서만 검색이 가능하던 現시스템을 **자연어 검색이 가능토록 개편*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**

* EU, 의약품 등 Keyword 입력시 이와 관련된 관세, FTA, 비관세장벽, 바이어 · 바잉오퍼, 지원사업, 무역통계, 무역애로 등 모든 정보 제공

F6 통관 · 인증 지원 강화

○ 한-중간 무역 원활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해 AEO, 원산지 등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**"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"** 체결('14.7.3일)

* ⅰ)AEO 이행 ⅱ)원산지 자료교환, ⅲ) 무역통계, Ⅳ)불법 · 부정무역 단속, Ⅴ)인적자원 개발 등

○ 기 운영중인 **"1381 인증 · 표준" 콜센터* 활용도 제고**

* '14.3.26일 개통하여 해외인증, 국내인증 및 표준 등에 대해 일평균 87건의 상담 처리

- 포털사이트 연계, 언론 광고, 산업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팝업창, 브로슈어 제작·배포 등 **'1381'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적극추진**

○ 중소 · 중견기업의 **해외인증제도 정보 제공** 및 **맞춤형 상담** 지원

- 중소기업 유망 품목에 대한 **국가별 인증제도 조사를 확대**(10→50개 품목)하고, 내수기업을 위한 **맞춤형 인증조사**(100개사, 코트라)

- 특히, 중국 인증획득 애로 해소를 위해 **정부간 협력채널*** 구축 및 **인증대행 컨설팅사**(중국 25개) **이력관리시스템 구축**('14.8월)

* 한 · 중 적합성 소위원회내 실무작업반(정부, 시험인증기관 등 참여) 운영('14.下)

4 정상외교를 활용한 중소·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

◇ **정상외교 포털 활성화, 경제사절단 운영 개선, 지역별 네트워크 확충** 등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

F4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활성화

○ 경제사절단 참여 **중소·중견기업 성공사례 집중게재**, 정상외교 **후속조치 및 지원사업 수시 update** 등을 통해 **정보 공유 강화**

< 경제사절단 참여 중소·중견기업 성공사례 >

▪ 패션그룹 형지는 총 8차례 경제사절단 참여를 통해 베트남 의류제조업체(C&M) 인수('13.9) 및 스위스 와일드로즈 브랜드 아시아 상표권 인수('14.1)에 성공

▪ 신동에너콤은 '14.6월 중앙아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우즈벡 실리콘메탈공장(年 5천톤 생산) 조기 가동 합의 및 방적공장 투자 MOU 체결(500만달러 규모)에 성공

○ **양방향 소통 활성화**를 위해 **포털을 개편***하고 **홍보를 강화****

* 포털 메뉴 단순화, 사절단 참가후기 게시판 운영 등

** 민간포털에 배너광고 및 키워드광고, 안내브로셔 배포, 웹페이지 링크 등

F5 경제사절단 운영 개선 및 해외진출 지원 실효성 제고

○ **(경제사절단)** 사전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**전방위 지원 강화**

- 사전기획을 통해 **순방국별 전략분야와 아젠다를 도출**하고, **사절단 참여 희망기업 DB를** 사전적으로 **구축**

- 국가별·분야별 전문 Session 개최, 상대국 기업과 수출상담회 주선 등 **현지행사를 다양화**하고 사절단의 사후관리를 강화

○ **(실효성 제고) 정상외교 성과가 실제 기업진출로 연계**되도록 지원

- **경제외교 성과**(협정, MOU 등)**를 활용**하여 **중소·중견기업이 제안한 해외진출 아이디어**는 각 부처·기관 담당관의 **1:1 상담을 지원**

< 기업제안 아이디어 상담지원 사례 >

▪ 선진엔텍은 **한·러 조선협력 MOU**('13.11월)을 계기로 **러시아 선박정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**('14.4월) ⇨ KOTRA는 **조선 기자재 전시회** ('14.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) **참여**를 주선하는 등 해외마케팅을 전담 지원

- 정부부처·유관기관에 산재한 **해외진출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**를 위하여 **통합·연계 지원 방안 마련**('14.下)

F6 지역별 경제협력 채널 및 네트워크 확충

지역	추진 방향	추진 내용
중앙아	■ 민관 협력채널 확대 ■ 기술협력 강화	■ **민관 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** 구성.운영('14.下) ■ **한-카자흐 기술협력사업 시행**('14.下, MOU 체결 추진)
중동 아프리카	■ 민관 경협채널 활성화 ■ 시장진출 확대	■ **4차 한-오만 경협위**('14.8), **한-이집트 경제협력포럼 및 한국원전산업 로드쇼**('14.8), **한-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**('14.11) ■ **7차 한-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** 개최 및 **진출 확대 전략 발표**('14.10)
동남아	■ 경제협의체 신설 ■ 정부간 협력위 확충	■ **한-아세안 Business Council** 신설('14.12) ■ **한-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** 출범('14.10)
중국	■ 지방정부 협력 강화 ■ 내수시장 진출 촉진	■ **한-광동성 발전포럼**('14.11) ■ **농식품 수출상담회, 공산품 구매사절단 파견, 한-중 테크노마트 행사** 등 개최
EU, 美洲	■ 산업.통상 협력 활성화	■ **한-EU FTA 무역위원회**('14.10) 및 **한-프 경제장관 대화**('14.下) ■ **한-페루·한-브라질 산업협력위**('14.下) 및 **한-베네수엘라·한-페루 협력센터**('14.下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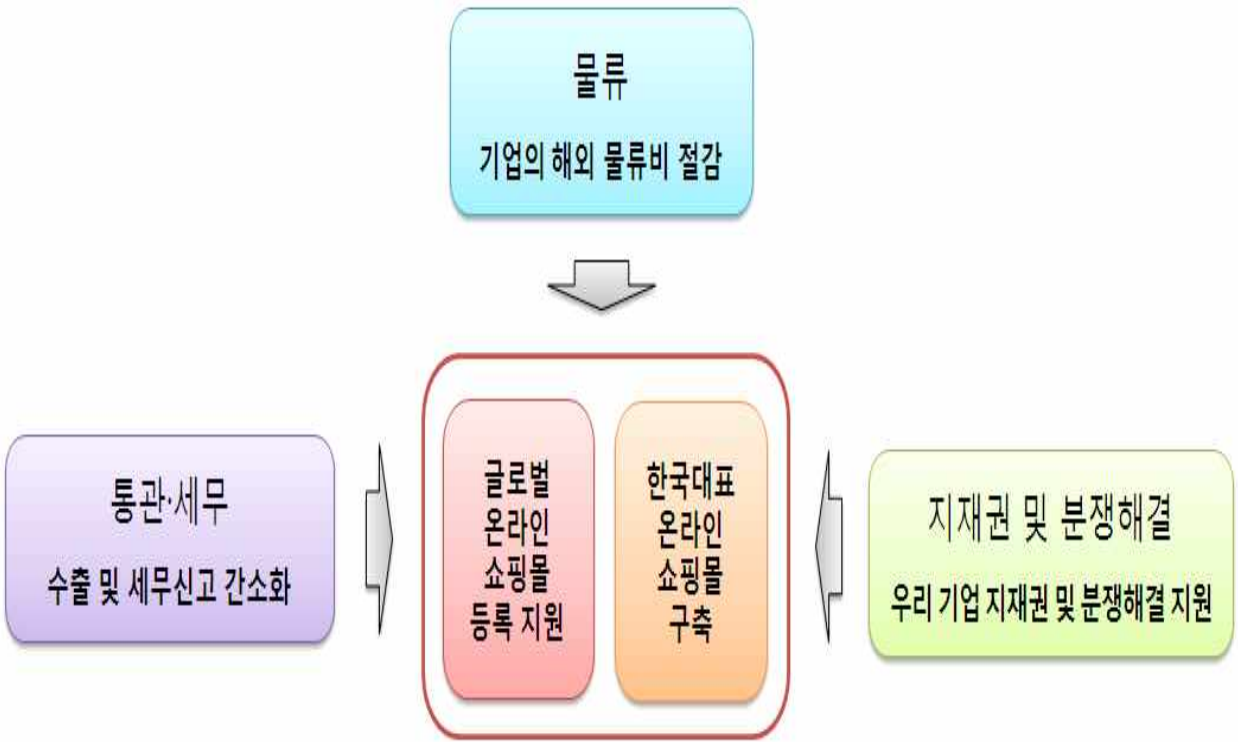
Ⅲ.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

□ **(정책방향)** 2017년까지 **전자상거래 수출을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편화**하기 위해 **全방위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**

* 전자상거래 수출 : ('13년) 2천 4백만달러 → ('17년) 3억달러 이상

○ **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의 한국상품 등록**을 확대하고, **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**도 구축

○ **물류·통관·지재권** 등 전자상거래 수출시 수반되는 기능도 보강



□ **(기대효과)** 해외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B2C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여 **소상공인과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판로 개척**

○ 또한, **개인무역 창업**을 통해 **청년 일자리를 창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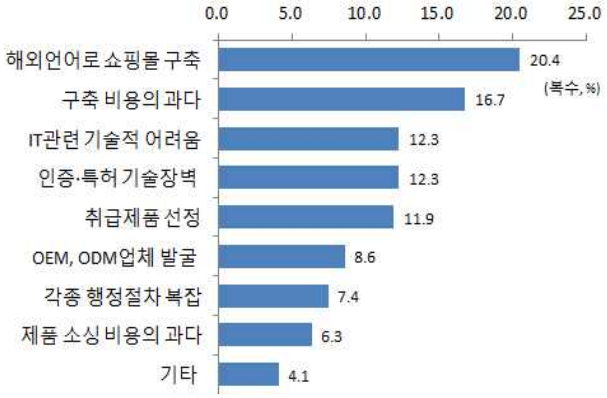
(참고)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실태조사 결과

◈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146개사, 해외소비자 1,316명 및 일반 무역업체 38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('14.4월, 무역협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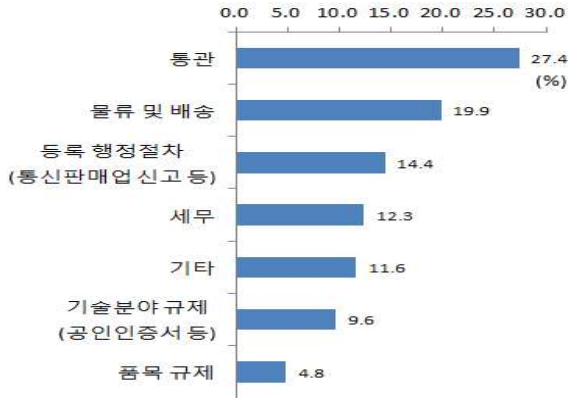
□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은 **쇼핑몰 구축비용, 외국어 번역, 제품 소싱, 복잡한 행정절차** 등을 주된 애로로 제시

○ 특히, **정부규제**로 인한 애로로 **통관, 물류 및 배송, 세무** 등을 제시

<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애로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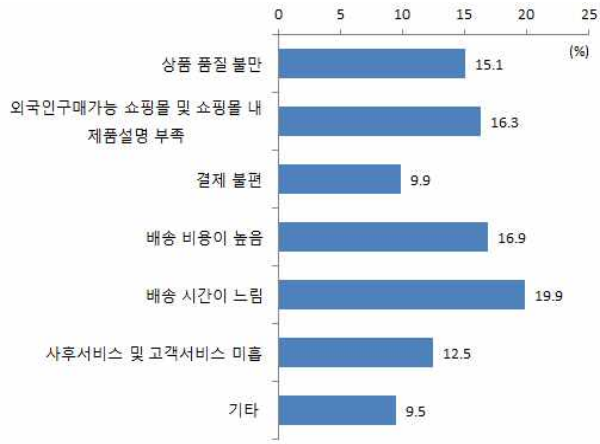
< 정부규제로 인한 애로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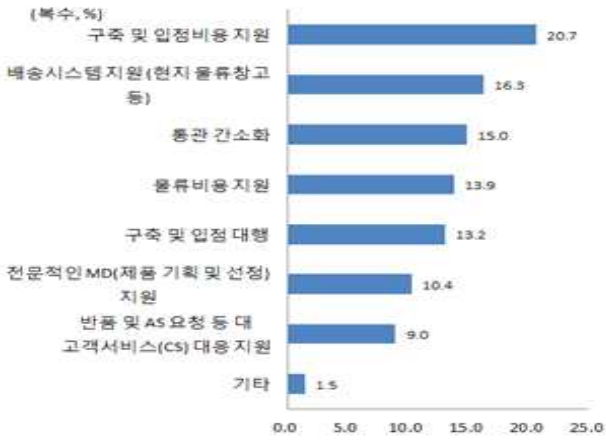
□ **해외 소비자**들은 한국상품의 온라인 구매 시 **배송시간 및 비용, 외국어 설명부족, 상품품질, 결제 불편** 등을 주된 애로로 제기

○ 한편, **일반 무역업체**들은 온라인 직수출 시 **쇼핑몰 구축·입점 비용, 배송, 통관 간소화 등의 지원**을 요청

< 해외 소비자의 한국상품 구매 애로 >



< 일반 무역업체 온라인 직수출 애로 >



1 B2C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강화

◇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 지원 및 한국대표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축

F4 중소기업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 지원(중기청)

○ **(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)** 중소기업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(Amazon(美), 淘宝(타오바오, 中) 등) **등록·판매 지원**

- '17년까지 **판매전문기업 200개사***를 지정하여 **중소기업 3천개사 수준(약 1.5만개 상품)****의 등록·판매를 대행

* 판매전문기업 지정 : ('14년) 50개사 → ('17년) 200개사

** 판매대행 지원 : ('14년) 1.3천개사·6.5천개상품 → **('17년) 3천개사·1.5만개상품 수준**

○ **(외국어 번역)** 中企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**외국어 상품 페이지·전자카달로그·동영상 제작**을 지원*

* 상품 페이지 번역 : ('13년) 7천개 → ('14년) 1.5만개 → **('17년) 5만개 수준**

○ **(우수상품 소싱)** 해외에 팔릴만한 **우수 중소기업 상품 DB를 대폭 확충***하고, **온라인 셀러-우수 중소기업 상품 연계 상담회** 개최('14.下)

* 우수상품 DB : ('13년) 1만개 → ('14년) 1.5만개 → **('17년) 3만개 수준**

F5 한국대표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(K-mall) 구축('14.6.24일 개통, 무역협회)

○ **(쇼핑몰 구축)** 독립된 Mall in Mall 형태*로 개설하여 **'17년까지 중소기업 1천개사**(1만개 상품)**의 입점을 지원

* 종합 쇼핑몰 내에 전체 상품 조회·구매가 가능하고, 업체별 미니스토어를 보유한 형태

** 입점업체·품목 : ('14)3백개사·3천개 → ('15)5백개사·5천개 → ('17)1천개사·1만개

- 입점 기업에 **외국어 상품 페이지** 제작, **해외 합배송** 서비스, **해외고객 상담**(C/S), **해외판매 교육** 등을 지원

- **K-mall의 상품***은 **글로벌 온라인 쇼핑몰**에 **동시 등록**하고, 문화콘텐츠 연계 리스팅, 방송 PPL(간접광고) 등 **한류마케팅도 지원**

* Gobiz KOREA(중진공), Buy KOREA(코트라) 등 B2B 싸이트와도 상호 연계 등록

○ **(결제 편의성) K-mall**을 통해 **외국 소비자에게** Active-X와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고 원클릭으로 결제 가능한 **편리한 결제 방식**을 제공

- **국내 소비자**에게 해외 수준으로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**제도 개선방안도 기 마련**('14.7.28 금융위 등 발표)하여 추진

○ **(홍보 강화) 검색엔진 키워드** 광고(Google, Yahoo 등), **소셜네트워크**(페이스북, 中웨이보, 日아메바 등)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

- 또한, **글로벌 한인 네트워크**(무역협회, KOTRA, OKTA 등), **한류와 글로벌 주요매체** 등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

2 전자상거래 맞춤형 통관·세무제도 간소화

◇ 전자상거래 기업이 수출지원제도(관세·부가세환급, 무역금융 등)를 활용할 수 있도록 **수출신고 및 세무신고를 간소화**

F4 수출신고 간소화('14.下, 관세청)

○ **(간이수출신고제도 신설)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**(57개 → **37개**)하고,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에 **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*** **도입**

* **(현행)** 수출품목 건별로 수출신고 직접 입력 → **(개선) 수출품목 최대 100건**의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'**일괄**적으로' 변환하여 **등록**

- 또한, **관세환급이 불필요한** 경우에는 **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**(57개 → **15개**)하고, 이를 **수출실적으로 인정***

* 수출기업이 요구할 경우 관세청에서 **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**

○ **(편의 제고)** 수출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HS 코드를 실제 거래 품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**'HS 내비게이션**(Navigation)' 개발

F5 세무신고 간소화·표준화('14.下, 국세청)

○ **(제도 개선) 세무신고**(부가세 환급) **시 인정서류를 간소화하고, 일선 세무서에 통일되게 적용**하도록 **표준화***

*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정비

【 세무신고 및 부가세 환급 인정서류 간소화.표준화(안) 】

구분	정식 신고	전자상거래 간이 신고	간이 목록신고	
수출 실적	• **수출신고필증** (관세청)	• **수출신고필증** (관세청)	• **수출실적증명서** (관세청)	• **우편물 영수증** (특송업체※)
외화 획득	• 필요 없음	• 필요 없음	• 필요 없음	• **외화입금증명서** (외국환 은행)

※ 수출신고 방식에 상관없이 부가세법 시행령상의 **우체국 소포수령증(발송인 보관용 우편물 영수증)**만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

○ **(교육)**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된 수출·세무신고 방식에 대한 **교육을 강화**하고, 필요시 **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포**

3 물류 경쟁력 강화

◇ **對중국 물류·통관 간소화, 국내 기업의 主배송수단 요금 인하** 등을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물류경쟁력을 강화

F4 對중국 물류·통관 간소화(산업부·관세청)

○ **(해상배송 체계 구축) 인천→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***한 해상 배송 서비스 도입 추진('14.下)

* 한국 물류기업에서 기존 노선(인천→칭다오 주 3항차·14시간 소요)을 활용

- **칭다오 세관內 간이통관 체계 구축*** 및 **수입허가 획득****을 통해 중국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배송시간을 단축

* 코트라 및 韓中 물류기업이 통관정보관리 및 X-ray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을 간소화(칭다오 세관의 시스템 비준 등을 거쳐 '14년 하반기 본격 가동)

** 화장품, 식품 등에 대해 中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허가를 先획득

【 인천→칭다오 페리선 배송 및 간이통관 프로세스 】

중국 소비자 주문	▶	주문상품 페리선 운송	▶	칭다오 보세창고 간이통관	▶	중국내 택배 (트럭, 항공)	▶	중국 소비자 배송 완료

⇒ **우체국 EMS 대비 비용은 30% 이상 저렴**하되, **배송기간은 2일 정도 더 소요**(우체국 EMS : 3~4일 VS 페리선 배송 : 5~6일)

○ **(한-중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간소화) 한·중 FTA**에서 일정금액 이하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해 **관세 및 수입신고 면제** 추진

* 영화파일, 음원, 전자책 등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는 기존 무관세 관행을 지속

- 또한, 일정금액 이하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해 **FTA 관세혜택 부여 위한 원산지 확인절차 간소화** 추진

F5 국내 수출기업의 主배송수단 경쟁력 제고(중기청·우본·산업부)

○ **(우체국 서비스 개선)** 전자상거래 B2C 수출품(경량)의 **배송비 인하** 효과가 나도록 **소형포장물 및 K-packet의 요금산정방식 개선***('15.7월)

* 현재 **6가지 중량 단위**(100g, 250g, 500g, 1kg, 1.5kg, 2kg)로 요금 산정 → **요금산정 단위**를 더욱 **세분화**

- 우편물 인터넷접수시스템에 **다국어 입력**이 가능하도록 개선('14.下)

* 현재 한국어 및 영어 지원 → **중국어, 일본어** 등으로 지원 확대

○ **(국제 특송업체 배송비 인하)** DHL 및 Fedex의 해외배송 서비스(수출신고 대행, 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 포함) 요금인하 협의('14.下)

- 약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**일반요금의 50% 내외의 할인** 적용

○ **(해외물류 지원)** 22개국 42개 공동물류센터(코트라)에 **B2C 온라인 수출품**의 **해외물류 全과정을 지원**하는 서비스* 도입('15.上)

* 해외주문 상품의 **보관, 포장, 배송, 반품처리**까지 토탈 서비스 제공

4 해외시장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

◇ **중국內 모조품 유통 단속, 해외 지재권 출원 지원, 분쟁해결 표준약관 개발**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

F4 해외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(특허청)

○ **(모조품 단속 강화)** 중국 최대규모 전자상거래업체인 **알리바바 그룹의 오픈마켓** 등을 대상으로 **모조품 유통 단속*** 강화('14.下)

* (모니터링) 지식재산보호협회·IP-DESK → (모조품 정보 제공) 협회 → (판매상품 삭제) 알리바바 그룹 → (행정단속) 확인된 모조품은 IP-DESK 침해조사사업과 연계 단속

○ **(해외 지재권 출원지원 확대)**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**특허·상표·디자인** 등 **해외출원비용 지원 확대***

* 지원 건수 : ('13년) 1,916건 → ('14년) 2,000건 → **('17년) 2,300건 수준**

F5 국내 기업과 해외 소비자 간 분쟁해결 지원('14.下, 산업부)

○ 해외 소비자(특히, 중국 소비자)와 국내 판매자 간 **분쟁해결을 위한 표준약관**을 개발하여 보급(K-mall에 시범 적용 후 확대)

Ⅳ.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강화

□ (정책방향) **환위험 대응력 제고 및 유동성 지원 확대** 등을 통한 중소·중견 수출기업의 수출환경 불확실에 대응

원/달러 환율의 하락
⇨ 수출기업의 채산성·자금사정 악화

대책 1	**대책 2**
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위험 대응력 강화	무역금융·설비투자 등 지원 확대 (금년 하반기 54.3조원 지원)
① 환변동 보험제도 개선 → 이용 편의성 제고 ② 환율정보 제공·교육 강화 → 내부 환율 대응역량 제고	+ 무보 21.3조원, 수은 11.9조원, 산은·정금공 6.2조원, 신·기보 3.8조원, 기은 11.1조원

□ (기대효과) **수출기업의 다양한 수요**에 맞게 **유동성을 적기에 공급**하여 **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**

○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 확대 및 新상품 개발 등을 통해 **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위험 대응능력 제고**

1 중소·중견 수출기업의 환위험 대응력 강화

◇ **환변동보험 제도개선, 환율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** 등을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**환위험 대응역량을 강화**

F4 (환변동보험 제도개선) 중소·중견기업의 이용편의성 제고

① **환변동보험 인수한도 확대**('14.7월)

- 신용평가 결과 정상 거래가 가능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**인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 100%**(기존 70~90%)**까지 상향 조정**

- **중소 제조기업의 옵션형 환변동보험*** **가입 활성화**

* 환율하락 시 손실은 보상하고, 환율상승 시 환수금 일부 혹은 완전 면제 (현재 농식품·수산물에 대해서만 가입 중임)

② **보험료 지원** :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·수출유관기관(aT·무역협회 등)의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('14.7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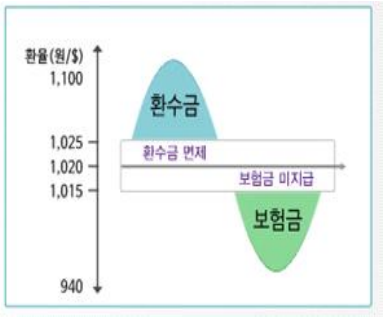
* 보험료 지원예산 확대(억원) : ('13) 44 → ('14) 58 (전년대비 14억원 증가)

③ 중소중견기업 선택폭 확대를 위해 **「범위 환변동보험」 신설**('14.8월)

-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일부 환위험은 부담하고, 일정환율이하로 하락 시 보상, 일정환율 이상으로 상승 시 환수하는 상품('14.8월)

*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범위 이상의 급격한 환율하락 시 수출기업이 동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며, 환율 상승 시에 환수금 부담 완화

< (예시) 범위 환변동보험 개념 >



F5 **(환헷지 역량 및 홍보 강화)** 중소중견기업 환율정보 제공·교육 강화

○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**환율전망 보고서*** **및 환율 동향정보**를 **SMS·이메일 등**을 통해 제공(무보, '14.6월)

* 환율동향·전망, 환헷지 기법 등을 12천여개 무역보험 이용기업에게 발송

○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현장에 **무역보험공사 지사 신설**(구로), **현지 지사 인력 증원**을 통해 수출현장 애로 적극 해소('14.9월, 무보)

* 무역보험공사 본사인력 40~50명을 지방 지사로 전진 재배치

- **무보 지사별 환위험 관리 전문가 배치** 및 현장밀착 컨설팅으로 **중소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원기반을 대폭 확충**

* '14.1~6월까지 무역보험 아카데미(9회) 및 외환포럼(4.15) 개최

○ **지역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** 및 **컨설팅 등 교육 강화**

- **중소기업 환헷지 역량강화**를 위해 **지역 설명회*** **등 개최**(연중)

* (무보) 서울·청주·제주 등에서 총 64여회 개최 예정(6월까지 29회 旣개최)
* (수은) 서울·대구·대전·광주 등 총 8회 운영 계획(6월까지 6회 旣개최)

- **수출초보 아카데미 과정*** **신설**을 통한 무역금융 교육 강화(수은)

* 수출초보기업 및 중소기업의 신입직원 및 초임실무자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 등에 대한 업무역량 배양교육 무상 지원

○ **중소기업 유관기관 협조**를 통한 **환변동보험 홍보 실효성 제고**

-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**대한상의·산단공 등 중소기업 유관 지원기관들과 공조***하여 홍보(무보)

* 홍보 브로셔를 제작 합동 배포, 1357(중소기업 통합콜센터, 5월개통)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링크 등을 통한 유선 및 온라인 홍보 강화

2 중소·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

◇ 수출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해 하반기 정책금융을 당초목표대비 1.7조원 증가한 54.3조원 지원**

* '14년 하반기 중소중견 수출기업 정책금융 지원(조원) : (당초) 52.6 → (변경) 54.3

F4 중소.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

○ **(무보 : 21.3조원) 중소형 플랜트 수주 경쟁력 제고*** 및 중소기업 단체보험** 제도개선 등을 통해 **무역보험 지원 확대**

* 수출기반보험 지원범위 확대('14.7월) : (기존) 조선·해운업체→ (확대) 기존 + 중소중견 항공 기자재업체 등 국내 소재 제조 중소중견기업 추가

** 단체보험 제도개선('14.6월) : 가입기준 수출실적 완화(3백만불→ 5백만불), 최소 가입기업수 완화(15→ 10개), 사고시 보상비율(90%→ 95%) 등

○ **(수은 : 11.9조원)**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히든챔피언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,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우대*

* 기술평가 결과를 신용평가 등급에 반영('14.10월)

○ **(신.기보 : 3.8조원)** 수출실적은 없으나 **수출계약서** 혹은 **기술력 보유 중소기업**에 **보증료 우대**(0.1~0.2%p) 등을 통해 **보증** 제공

* (신보)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를 보유 수출초보기업 보증료 할인(0.1%p)

* (기보) 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우수 기술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(0.2%p)

F5 중소.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설비투자.생산자금 등 지원 강화

○ **(산은.정금공 : 6.2조원) 제품생산·투자자금 대출**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중소벤처기업에 특별 온렌딩*** 등 지원 강화

* 정금공이 시중은행을 통해 저리로 시설·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
○ **(기은 : 11.1조원)** 신용도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, 환변동 등으로 **일시 경영상 애로**가 있는 **중소·중견기업에 원자재 구매자금 등** 지원

Ⅴ. 과제별 실천계획(Action Plan)

실천 과제	현재	달라지는 점	시행일 (담당 부서)
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			
■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	ㅇ기업 필요에 따라 개별 수출지원사업(정보.마케팅 인증.금융)별로 각각 기업 스스로 신청하여 참여	ㅇ수출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집중 지원 * '14.下 5백개사 시범사업 → '15년부터 확대 시행 ㅇ기업별 PM을 배정하여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 * 유관기관별로 PM 인력풀 확보(1인당 20개사 내외 지원)	'14.9월 (산업부, 중기청)
■ 전문무역상사 지정.운영	ㅇ내수기업은 해외 거래선 확보가 어려움	ㅇ시장 및 품목 전문성을 갖춘 전문무역상사(100여개)를 지정하여 간접수출 확대 * 전문무역상사에 무역금융 및 마케팅 지원 강화	'14.9월 (산업부)
■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활용 확대	ㅇ중소.중견기업의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 미흡	ㅇ해외프로젝트 대출 보증시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 * ('13)1,922억 → ('14)2,150억 ㅇ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2차 벤더로 확산 * (사례) G社의 중소기업제품 해외판로 지원 등	'14.8월 (산업부, 중기청)
■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	ㅇ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은 무역보험 이용 등이 곤란	ㅇ수출실적 없는 기업도 최대 10만달러까지 무역보험 지원 * "수출 첫걸음 희망 보험" ㅇ첫수출 및 수출중단기업에 대출금리 인하(최대 0.5%p) 및 컨설팅 지원	'14.9월 (산업부, 기재부)

■ 수출초보 및 급성장 기업 무역보험 특례지원	ㅇ 전년도 수출실적 등에 기반한 심사로 무역보험 지원한도가 낮음	ㅇ 수출실적이 낮은 기업도 경제성 있는 수출기회 확보 시 심사를 거쳐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 * 연간 3,000억 한도내 운용	'14.9월 (산업부)
■ 통합무역정보 서비스 본격 운영	ㅇ 12개 수출유관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 ㅇ 관세율, 규제정보 위주의 정보 제공 ㅇ HS코드로만 검색 가능	ㅇ 정보연계기관을 모든(34개) 수출유관기관으로 확대 ㅇ 바이어·바잉오퍼 등 핵심정보 제공 ㅇ 자연어로 검색 가능	'14.7월 (산업부)
■ 통관 및 인증 지원	ㅇ 중소중견기업의 통관 및 인증(특히, 중국) 애로 해소 지원이 미흡	ㅇ 한-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 체결 * 원산지 자료 교환, AEO 이행 등	'14.7월 (관세청)
		ㅇ 내수기업 맞춤형 인증조사 실시(100개사) ㅇ 중국 인증애로 해소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	'14.12월 (산업부)
■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활성화	ㅇ 정상외교 포털이 일방향 정보제공 위주	ㅇ 양방향 소통 활성화* 및 홍보 강화** * 사절단 후기 게시판 운영, 포털메뉴 단순화 등 ** 민간포털 배너.키워드 광고, 안내브로셔 배포 등 ㅇ 중소.중견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 집중게재	'14.10월 (산업부)
■ 경제사절단 운영 개선 및 내실화	ㅇ 정상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사절단 모집	ㅇ 사전기획을 통해 순방국별 전략분야.아젠다 도출 및 사절단 희망기업 DB 구축 ㅇ 국가별 현지행사 다양화 및 사절단 사후관리 강화	'14.10월~ (산업부)
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			
■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 지원 강화	ㅇ 중소기업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.판매 지원 미흡	ㅇ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확대 * ('14)1.3천개사 → ('17)3천개사 수준 ㅇ 외국어 번역 지원 확대 * ('14)1.5만개 → ('17)5만개 수준 ㅇ 우수상품 소싱 지원 확대 * ('14)1.5만개 → ('17)3만개 수준	'14년~ (중기청)

■ 한국대표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축	ㅇ중소기업의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장벽(현지 계좌, 보증금, 수수료 등)이 높은 편	ㅇ중소기업을 집중 지원*하는 한국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 * 간편결제, 합배송, 한류 마케팅, 해외 쇼핑몰 입점, B2B 연계 등	'14.6월 (무역협회)
■ 수출신고 간소화	ㅇ정식 수출신고 절차가 복잡 -품목당 57개 항목 신고 -수출품목 건별로 신고항목을 UNI-PASS에 직접 입력	ㅇ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도입 -신고항목 37개로 축소 -수출품목 50~100건의 신고항목(엑셀파일)을 UNI-PASS에 일괄 등록	'14.7월 (관세청)
	ㅇ간이 목록신고는 수출실적으로 불인정	ㅇ간이 목록신고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(수출실적증명서 발급)	'14.9월 (관세청)
■ 세무신고 간소화·표준화	ㅇ세무서(혹은 담당자)별 세무신고 시 인정하는 증빙서류가 다양	ㅇ수출신고필증(전자상거래 간이 신고) 혹은 수출실적증명서(간이 목록신고)만으로 신고 가능	'14.12월 (국세청)
■ 對중국 물류 및 통관간소화	ㅇ우체국 EMS 등 비싼 항공 배송을 주로 이용	ㅇ저렴한 해상 배송(인천 → 칭다오) 서비스 도입 * 우체국 EMS 대비 30% 이상 저렴, 배송기간 약 2일 더 소요	'14.12월 (산업부, 관세청)
	ㅇ중국 현지 통관 문제로 배송지연 등 애로 발생	ㅇ한-중 FTA를 통해 -일정금액 이하 관세 및 수입신고 면제 추진 -일정금액 이하 FTA 원산지 확인 간소화 추진	- (산업부, 관세청)
■ 해외배송 경쟁력 제고	ㅇ국제 특송업체 배송은 부가 서비스*를 제공하는 대신 요금이 비싼 편 * 수출신고 대행, 현지통관 등	ㅇ국제 특송업체(DHL.Fedex) 배송비 인하 * 1천여개 기업 대상 일반요금의 50% 내외 할인	'14.9월 (중기청)
	ㅇ우체국 해외배송 서비스 개선 및 온라인 수출품의 해외물류 지원 강화 필요	ㅇ우체국 소형포장물 및 K-packet 요금산정 개선 * 요금인하 효과가 나도록 요금산정 중량 단위 세분화	'15.7월 (우본)
		ㅇ해외 물류센터(22개국 42개, 코트라)내 온라인 물류지원 서비스 도입	'15.6월 (산업부)

■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	ㅇ중국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지재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	ㅇ중국 온라인 시장 내 모조품 유통 단속 강화 ㅇ해외 지재권(특허.상표.디자인) 출원지원 확대 * ('14)2천건 → ('17)2천3백건 수준	'14년~ (특허청)
■ 분쟁해결 지권	ㅇ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해외 소비자 분쟁해결에 관한 표준약관이 없음	ㅇ해외소비자-국내기업 간 분쟁해결 위한 표준약관 개발.보급	'14.12월 (산업부)
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강화			
■ 환변동보험 인수한도 확대	ㅇ환변동 인수한도 책정시, 전년도 수출실적의 70~90%만 인정	ㅇ환변동 인수한도 책정시,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% 인정(한도 확대)	'14.7월 (산업부)
■ 환변동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	ㅇ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 지원 미흡	ㅇ'14년 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확대(14억원↑) * ('13)44억원 → ('14)58억원	'14.7월 (산업부, 농식품부, 해수부)
■ 범위 환변동 보험 신설	ㅇ환변동보험은 일반형과 옵션형을 운영 중	ㅇ수요자 선택폭 확대 위한 범위 환변동보험 신설 * 옵션형 환변동 대비 보험료 저렴 및 일반형 환변동 대비 환수금 부담 완화	'14.8월 (산업부)
■ 중소중견기업 환율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	ㅇ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환율 일일 동향 게시 및 500여개사에 환율 월간 전망 보고서 이메일 제공 ㅇ무역보험공사 국내 현지지사 13개 운영 중	ㅇ1만2천여개사에 환율 일일 동향 문자 서비스 및 월간 전망 보고서 이메일 제공('14.6월) ㅇ무역보험공사 국내 현지지사 2개 신설 및 인력 증원(40~50명) ㅇ수출초보기업 지원을 위해 아카데미 과정 신설	'14.9월 (기재부, 산업부)
■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	ㅇ당초 하반기 목표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등에 52.6조원 지원	ㅇ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하반기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1.7조원 추가 확대한 54.3조원 지원	'14.下 (기재부, 산업부, 금융위, 중기청)

참고3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

◇ 일시·장소 : '14.8.12(화) 9:20~11:55, BH 영빈관

◇ 안건 : ① 대내외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확대 대책

ⅰ)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(산업부)

ⅱ)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대책(농식품부)

② 투자활성화 대책: 유망 서비스산업* 육성 중심

(부총리, 복지·교육·문화·국토·미래부·금융위)

* ①보건의료, ②교육, ③관광, ④콘텐츠, ⑤금융, ⑥물류, ⑦SW

참석자 약 180명

○ **(경제계)** 경제 6단체장, 기업대표 등 60여명

○ **(정부)** 경제부총리,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, 미래·교육·농식품·산업·복지·환경·고용·국토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금융위원장, 기재1·미래2·교육·문체1·산업1·복지·국토2·해수부 차관, 관세·중기·특허·산림청장, 금융위 부위원장,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

○ **(자자체)** 강원도 양양군수, 강남구청장

○ **(국회)**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

○ **(유관기관)** 코트라·농수산식품유통공사·무역보험공사 사장 등

회의진행 총 2시간 35분

○ 개회 및 국민의례(5분) → 모두말씀(10분) → 무역세션(보고 6분, 토론 33분) → 투자세션(보고 21분, 토론 73분) → 마무리말씀(5분) → 폐회(2분)

○ 토론세션(무역, 투자)별로 참석자가 발언하면 소관부처 장관이 답변하여 현장에서 직접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(trouble shooting)